

광주시 AI집적단지 창업동 개소

전국 최초 AI창업 허브 연구개발·실증·성장 지원...입주기업 모집
67개 사무공간 등 갖춰...창업 컨설팅, 기술·IR 멘토링 프로그램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창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했다. 연구개발과 실증 인프라, 맞춤형 성장 지원을 아우르는 전국 최초 수준의 창업 허브가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15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산업단에 따르면 첨단3지구 AI집적단지에 창업동을 개소하고 입주기업 모집에 나섰다. AI창업동은 인공지능 기반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한 공간이다. 총 67개 전용 사무공간과 회의실, 교육실, 컨퍼런스홀, 라운지 등 협업 시설은 물론, 사위실과 헬스장, 휴게실, 야외체육시설 등 복지시설까지 갖

춰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단순 공간 임대에만 그치지 않고 세계적 수준의 실증 인프라와 연계되는 점이 특징이다. 입주 기업은 국가 AI데이터센터의 최신 GPU 기반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특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생산부터 개발, 활용, 실증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 광주 기업에는 데이터센터 50%(신규 서비스 선정 기업 한정), 실증 장비 3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시는 이번 창업동 개소를 계기로 창업과 실증 테

스트베드 기능을 강화해 우수 AI 스타트업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창업 컨설팅과 기술·IR 멘토링, 투자 유치 연계, 전시회 참가 지원, 판로 개척, 시 및 사업단 연계 사업 참여 기회, 연구개발특구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입주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AI창업동은 기술과 비즈니스, 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광주형 창업 생태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유망 AI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광주가 대한민국 AI 창업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HDC현산 “학동4구역 재개발 정상화...연내 착공 목표”

공사비 3.3㎡당 619만8000원
“원자재·물가 상승분 최소 반영”

HDC현산산업개발은 15일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HDC현산에 따르면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8월 건물 철거를 마무리한 데 이어 지난 7월 조합원 총회에서 공사비를 3.3㎡당 619만8000

원으로 확정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현산은 “이번 사업에서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는 약속에 따라 최소한의 원자재·물가 상승분만 반영한 것”이라며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약 78%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지하 3층~지상 29층, 19개 동, 전용면적 39~135㎡ 2299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학동4구역의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1개월이며, 2029년 완공 목표다. 앞서 2021년 6월 9일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

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류장에 멈춰 서있던 시내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고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산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부실시공)과 과징금 4억623만4000원(하수급인 의무 위반)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미소페’ 구두 균일가 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고객에게 구두를 신겨주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8일까지 9층 행사장에서 슈즈 브랜드 ‘미소페’의 균일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남성·여성 구두, 남성·여성 워킹화, 여성 앵클부츠 등 다양한 슈즈 제품을 전품목 6만 90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카뱅, ‘우리아이통장’ 출시
최고 7% 금리 ‘우리아이적금’도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통장’과 ‘우리아이적금’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아이통장’은 0세부터 만 16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참여해 자녀의 계좌 명세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우리아이통장’을 개설하면 어머니에게 초대 링크를 보내 함께 가입할 수 있으며, 이후에 각자의 휴대전화로 ‘우리아이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자녀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직접 계좌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도 있다. ‘우리아이적금’은 기본금리 연 3%에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추가 4%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7%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기간은 12개월로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소비자단체 “원두가격 올라 커피값 인상 불합리”

“원두 가격 비중은 5%로 미미”

소비자단체들이 원두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주장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12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5일 “아메리카노 한 잔에서 차지하는 원두(가격) 비중은 5% 수준으로 미미하다”며 “업체들은 더 이상 원두 가격 급등으로 커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대며 가격 인상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커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자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의 영업 실적과 원료값 변동 등을 분석해 커피 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했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커피(외식)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7%)의 세 배 수준이다. 커피 브랜드들이 메뉴 가격 인상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은 원두 가격 상승이다. 그러나 협의회가 브랜드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

의 원가를 자체 추정한 결과 에스프레소 샷에 사용되는 원두(약 10g)의 원가는 111원 내외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스타벅스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한 잔(2샷) 가격이 4700원인데, 원두 가격이 222원이라면 메뉴 가격의 4.7% 수준”이라며 “저가 브랜드 아메리카노(1700~1800원) 가격으로 봐도 원두 가격은 12.3~13.1% 수준이다. 소비자가 마시는 커피 한 잔에는 컵, 빨대 등의 부재료와 임대료,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가 앞서 가격 인상을 단행한 커피 브랜드 네 곳의 실적을 살펴본 결과 모두 이익을 내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스타벅스는 작년 3조원대의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6.5% 상승했다. 메가MGC커피는 2020년부터 4년간 매년 평균 72.6%의 매출성장률을 달성했다. 작년과 2023년의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55.1%, 124.1% 늘었다. 투썸플레이스 역시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5.2% 늘었고, 컴포즈커피는 2023년부터 전자정보공시시스템에 재무 정보를 공개해야 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추석 환전 이벤트’...환율 우대 혜택

광주은행은 “추석 명절을 맞아 외국통화 환전 시 최대 8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추석맞이 환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0월 2일까지 진행되며, 개인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 등 3개 통화에 대해 환전 스프레드의 80%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환전 한도는 통화별로 1000달러, 10만엔, 1000유로다. 가까운 영업점 방문을 통해 환전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모바일웹뱅킹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지정한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다. 김대석 광주은행 외환사업부장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에 발맞춰 환전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광주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경총,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우려 표명

“경제 악영향...처벌 중심 탈피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경총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향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와 입법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대책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 없이 사후 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 방향을 내놓았다”며 “우리나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은 이미 최고 수준이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히 “경영계는 정부가 산재 예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처벌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중심의 정책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를 요청한다”며 “많은 영세 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산재 예방정책은 산재 취약 사업장·계층 지원 확대에 집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액 24조

채무조정 신청은 약 15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액이 24조원을 넘어섰다.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누적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14만9545명, 채무액은 24조308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월보다 5511명, 8594억원 늘어난 수치다. 새출발기금이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4만3788명(채무원금 3조9745억원)이 약정 체결했다. 평균 원금 감

면율은 약 70%였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4만8046명(채무액 3조 7474억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5.1%포인트(p)였다. 8월 말까지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 계좌별 부동의 회신율은 66.6%를 기록했다. 업권별로는 ▲은행 62.1% ▲상호금융 21.1% ▲저축은행 60.9% ▲보험 3.4% ▲여신금융 86.9% ▲기타기관 0.8%로 나타났다. 보증기관의 수정조정 부동의 회신율도 85.2%였다./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30일까지 신청

‘6년 단기임대’ 빌라·연립도 대상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과세 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며, 기존에 신청한 납세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1주택자가 구입한 빌라·연립 등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 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이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단기 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 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할 때 기본공제 12억원 등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 주택이거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 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재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407.31	(+11.77)
▲ 코스닥	852.69	(+5.61)
▲ 금리 (국고채 3년)	2.443	(+0.012)
↓ 환율 (US D) <오후 4시 45분 기준>	1387.75	(-0.45)